애기바당에서 할망바당까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퍼실리테이터
발표 **응우옌 티히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위원, 베트남 국립 문화예술연구소 부소장
브렌다 백선우 〈물때: 제주섬 바다의 할머니들〉 사진작가
조이 로지타노 제주신당 사진집 〈스피릿츠〉 다큐멘터리작가
고희영 해녀영화 〈물숨〉 영화감독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애심 법환해녀학교장, 제주도해녀협회 회장
채지애 제주해녀
정리 **강현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응우옌 티히엔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평가 과정 및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ICH에는 전 세계 많은 유산들이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은 관련 사항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이다. 매년 ICH 등재를 목표로 세계 각국에서 서류가 제출되고 있는데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온라인 평가 과정을 거친 후 담당자들이 만나 임시 건의사항을 만들고 최종 보고와 등재 결정이 이루어진다. 2016년 11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제주해녀가 다섯 가지 등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ICH 등재가 확정됐다.

제주해녀의 문화적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 '바다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들은 산소통과 같은 첨단장비 없이 잠수하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여성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보여 준다. 또한 해녀들은 해양자원과 물질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작업함으로써 공동체문화를 대변한다. 성 평등 측면에서도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해녀들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여성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제주해녀는 지속가능한 환경개발 모델을 제시한다. 즉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과 직접 얻은 경험을 통해 해산물 채집을 절제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여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해녀문화는 노동요, 무속의식 등을 통해 독특한 제주의 문화를 구현한다. 해녀문화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 전승되어야 한다.

고희영 해녀문화는 제주 이외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요소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세계를 여행하며 영화의 소재를 탐색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주해녀의 매력을 깨달았다. 이후 해녀들의 바다를 7년 동안 촬영해 영화 〈물숨〉을 제작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해녀들과 그들의 바다 사이에 엄격하면서도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주해녀들은 앞으로 세계가 지향해야 할 '에코페미니즘'을 구현하고 있다. 해녀는 도구를 통한 산소공급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조류와 패류를 캐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인을 의미한다. 이들이 산소통도 없이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장비를 사용해 오랜 시간 채집이 가능하게 되면 후대 해녀들이 캘 것이 없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전해져 온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욕심을 절제하자는 해녀들 간 약속과 공동체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작은 해산물은 건드리지 않으며 해산물 산란기에는 채집을 제한한다. 바로 이것이 자연을 정복자나 수탈자로 보지 아니하고, 바다를 '바다밭'으로 보며 바다와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에코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제주해녀가 ICH에 지정되어 매우 기쁘며 해녀문화가 앞으로도 계승되고 유지되기를 소망한다.

이선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해녀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녀문화는 거친 바다에서 여성들의 문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자연을 가꾸는 지혜를 포괄한다.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강조하는 자연, 사람, 문화의 가치가 모두 녹아 들어간 것이 제주해녀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유산과'를 신설하는 한편, '제주해녀헌장'을 선포했다. 제주해녀의 ICH 등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적 브랜드를 확보함과 더불어 해녀들의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에서 몸을 드러내며 일해야 했던 해녀들은 과거 자신들의 직업을 부끄러워했고 물질이라는 매우 고된 작업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편견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ICH 등재가 되면서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다. 지방정부에서는 향후 다른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정부 차원의 제주해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이 해녀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계승하는데 기여하도록 교과서 수록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들의 생계를 위해 신규 해녀의 정착금 지원 및 고령해녀의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애심 제주해녀들은 선배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으며, 산소통과 같은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 상생하며 살아왔다. 법환해녀학교는 제주해녀 ICH 등재 이전에 시작되었는데 해녀 수와 고유의 문화 유지를 목표로 설립됐다. 물질은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과 맞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녀학교에서는 꾸준히 학생들을 받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해녀협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녀 양성과 권익 보호에 힘쓰는 한편, 해녀문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다.

채지애 해녀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첫 번째가 어머니라는 문턱이었다. 서울에서 귀향해 해녀가 되고자 했던 나를 어머니께서 반대하셔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 외 주변의 부정적인 편견과 물에 적응하고 낯선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있었으나 의지를 갖고 극복했다.

제주해녀 문화의 핵심은 공동체문화라 할 수 있다. 상호 경쟁하면서도 배려하고, 보살피는 한편 상생하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감동을 받았다. 해녀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로 배우고 체득했다. 자식을 위한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학벌보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물숨'이란 해녀들이 해산물 채집을 위해 한계를 넘어 숨을 참다가 산소 부족으로 실신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버려야 할 욕심을 알게 됐다. 해녀들은 체력 소모, 고령화, 불안정한 소득 등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해녀 정책 관련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GLOBAL JEJU

우선 해녀 양성은 무조건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해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지원금과 더불어 해녀들의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해녀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바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녀 간 소통의 장도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조이 로지타노 제주에서 무속신앙의 요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다른 종교와 융합되어 나타난다. 해녀들은 무사조업과 풍족한 해산물 수확을 위해 해신들에게 제를 지낸다. 제주는 육지와 달리 무속신앙이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관광지구 및 도로 건설을 위해 신당과 신목을 제거해 무속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해녀들은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무속신앙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의견 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해녀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브렌다 백선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에서 머물며 해녀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해 책을 출간했다. 제주해녀는 우아하며 깊은 인내를 지닌 사람들이다. 숨이 찰 때 뭍으로 올라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물에 들어가 작업을 지속하는 고령 해녀들에게 경외감을 느낀다.

해녀들과 생활하면서 경제적 생존, 토속신앙에 대한 믿음, 연민, 사랑, 희망,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4·3사건 등을 거치며 해녀들은 힘든 삶을 살아 왔으며, 축적된 한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해녀들은 항일운동과 환경보호에 참여해 왔다. 물질을 하지 않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치매에 걸린 이들을 돌보거나 해양정화 활동을 하는 한편, 가정폭력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이도 있다.

앞으로 제주도와 다른 지역들이 해양 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것을 지속해야 한다.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해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정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

Keywords
제주해녀, 유네스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문화, 에코페미니즘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해녀문화의 유지·발전 및 세계화에 힘써야 함.
- 제주해녀 ICH 등재 이후 관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함.
- 해녀 양성은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해녀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녀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해녀문화 유지·발전을 위해 이들의 신앙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친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좌장 **박현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개발본부장, 교통공학 박사
기조연설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사연구팀장, 관광개발학 박사
토론 **강기춘** 제주연구원 원장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장
이용탁 JIBS 보도본부장
김규호 경주대학교 교수
정리 **김시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임

박재모 매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제주로의 유입 인구 증가는 지방세수의 괄목할 만한 증대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는 서민주택·주거문제, 상하수도·쓰레기 처리문제, 주차장 및 교통문제 등의 도시 인프라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객과 유입인구 증가로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도시기반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청정제주의 미래를 위한 관광교통 수단과 대량수송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는 간선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버스 운행에 철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와 자기부상철도, 모노레일시스템, 트램 등이 있으며 관광도시 제주 상징성과 도서지역에 맞는 교통수단 도입과 권역별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가정하고 건설비를 산정한 결과, 10개 정류장, 7편성, 15분 배차 간격 고려 시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 연간 운영비는 470억원이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국비지원이 필수다.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도입된 모노레일, 성남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트램(2020년 개통예정)의 1km당 건설 비용 비교 결과,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646억, 모노레일 623억, 트램 288억원으로 단가로는 트램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트램은 도심교통수단으로 적합하지만 광역교통수단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체제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광역교통체계는 시·군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간을 연결하는 교통체제로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인정받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범사업 유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 근거와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탁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제주도는 외